

할렐루야 !

올 한 해도 하늘과 땅의 풍성 함으로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온 가족이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셨는지요?

1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올 한 해도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라는 실감을 더 갖게 됩니다.

특히 탕가 신학교와 리빙 스톤 중학교의 졸업생들을 떠나 보내면서, 이듬해 봄에 새싹을 트이기 위해 한해 동안 품었던 잎새들을 떠나 보내는 보이지 않는 나무의 용기를 생각해 봅니다.

2016년에 새롭게 피어날 새잎들이 기대가 됩니다.

탕가 신학교 졸업식 소식.

지난 20일 제 15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23명의 주의 종들이 3년간의 모든 학업을 마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 갔습니다. 1,2학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한 파송의 밤 행사를 통해서도 아쉬움을 나누 었습니다.

이제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방학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 지가 주님의 은혜로 더 기름지고 풍성해 지길 축복 합니다.

리빙 스톤 중학교 소식.

1) 그동안 마음 졸이며 준비 해 왔던 2,4학년들의 국가고시가 모두 끝나고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최선 다한 그들과 함께 수고한 모든 교사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국가고시 결과는 내년 초쯤 발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는 내년도 신입생들이 소집되어 2주간의 영어,수학을 집중적으로 교육 받고 있으며 동시에 태권도를 통한 체력 향상과 학교의 생활을 미리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들도 28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 컨테이너 물품 정리.

이번 12월 방학기간에는 2주전에 찾은 컨테이너 물품들을 정리 정돈하는 일이 주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준비 해 온 도서관 책장 조립,과학관 씽크대 설치, 300개가 넘는 학생들 사물함 설치 등등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고태일 집사님께서 사역지에 도착 하셨습니다. 한달 간 머무시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우시게 됩니다.

이런 일 들이 끝나야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해봅니다.

3) 과학관 마무리 공사와 교내 도로 정비.

어떤 일 이든 마무리 기간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과학관 공사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마무리 부분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 하셔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본관 앞,뒤에만 깔아놓은 보드블럭을 본관 양쪽 라운드 길(로터

리)을 이번 방학기간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번 도록 정비 공사에 들어가는 보드 블럭의 갯 수만 약 5만개가 사용 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금 해 주신 가정에 감사를 드리며 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수고 해 주시는 우리 선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내년엔 사역지를 방문 하시면 더 산뜻한 학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4) 교사 사택 증축.

내년에 몇명의 교사가 더 동참하게 됨으로 미리 사택을 짓고 있습니다. 싱글 교사 5명이 각자 방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현재 지붕 씩우기 작업이 완료되고 내부 벽 바르기 작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노동허가(work permit -visa) 받는 절차 변동.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허가 받는 절차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전에는 \$250의 fee 를 지불하고 이민국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10월 부터는 이민국에 가기전 노동국의 허가 편지를 먼저 받아야 이민국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국에 지불해야 할 fee 또한 \$500을 내야 합니다. 두 곳에 지불 해야 할 경비(\$750)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노동국의 까다로운 절차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 갖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용기 잃지 않고 사역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탄자니아 대통령선거 결과 소식.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Mgufuli 라는 현재의 여당(CCM 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그 어느때 보다도 가열 되었던 선거전 이었기에 모두가 선거 후에 혼란스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혹자는 이런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탄자니아 국민 특유의 인내" 라고....

하지만 탄자니아 본토 앞 인도양에 있는 잔지바 라는 섬(행정 자치 국가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탄자니아 국가)에서는 야당인 이슬람 정당이 대통령에 당선 되었지만 부정선거로 무효가 되어 90일 후에 재 선거를 한다는 발표로 매우 혼란 스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잔지바 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함께 기도해주세요.

1. 신학교와 리빙 스톤 학생들이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 교내의 도로 정비와 과학관 그리고 신축중에 있는 교사 사택의 마무리를 위해서.
3. 컨테이너 물건들이 제 자리를 찾아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4. 방문 중인 고태일 집사님의 사역과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5. 방학동안 2곳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의 평강이 남은 한 달도 여러분들 삶의 기쁨이 되길 축복 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탄저니아 사역지에서 박윤석 선교사 가정 드림.